

# 『조선문학통사』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양 영 길\*

## 차 례

- I 서론
- II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 1. 문학사 인식 방법
  - 2. 시대구분과 그 구성
  - 3. 시대별 서술 내용
  - 4. 『조선문학통사』 서술의 성과와 문제점
- III 결론

## I. 서론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 서술된 저서들의 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에 이은 것으로 광복 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에 대한 연구 선상에 있다. 이미 1947~1949년에 간행된 백철의 『조선신문학사 조사』, 1956년에 간행된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를 살펴본 바 있다. 이 시기의 또다른 문학사로 사회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 상·하(과학원출판사, 1959)가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문학통사』 상·하 중에서 근·현대편을 서술하고 있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는 '하' 권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학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한국 근대문학사의 시대구분과 서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각 시대별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선문학통사』 서술의 성과와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근대기점에서부터 광복 이전의 문학사를 그 범위로 한다.

## II.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 1. 문학사 인식 방법

문학사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서술의 근간을 이루는 인식 방법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 방법은 서두 부분에 밝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책 『조선문학통사』의 '머리말'을 살펴보자.

우리 문학 앞에는 우수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함으로써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할 데 대한 영광스러운 과업이 제기되어 있다.

우리 문예학자 집단은 이 간절한 현실적 과업에 이바지하고자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의 찬란한 개화 발전을 이루기까지에 우리 문학이 인민과 함께 걸어 온 영광스러운 역사를 맑스-레닌주의적 방법으로 간명하게 서술하여 이에 《조선문학통사》를 상·하권으로 나누어 내어 놓는 바이다.

(...)

이 《문학통사》는 우리 문예학자 집단이 문학사를 집체적으로 서술한 첫 시도이다. (...)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는 과학적 조선문학사를 완성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 
- 1) 지금까지 북한에서 서술한 문학사 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한 경우는, 민족문학연구소 편 의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창작과 비평, 1991)과 이명재의 「북한문학사 서술의 문제점」(『어문연구』 8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4년 가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조선문학통사』는 집체적 인식에 의해 당의 문예 정책을 과학적으로 완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문학사 서술은 필연적인 사업이며, 그 배경은 첫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 하게 하고, 둘째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하고, 셋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 을 이루게 하는 '영광스러운 과업' 이라는 것이다. 즉 전문적, 학술적 접근이 아닌 교양적, 교육적 차원의 인식으로 '간명하게 서술' 하고 있다.

또 그 근간을 이루는 문학사 인식은 '역사주의 원칙에 입각' 하여 '우리 문학이 인민과 함께 걸어 온 영광스러운 역사를 맑스-레닌주의적 방법' 으로 서술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서 역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의 진보적 문학을 관류하고 있는 열렬한 애국주의, 풍부한 인민성, 높은 인도주의의 전통을 밝히며, 특히 해방 후에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문예정책에 의하여 그의 특성을 명확히 천명하려는 지향으로 일관하였다.(머리말)

즉, '진보적 문학을 관류하고 있는 열렬한 애국주의', '풍부한 인민성', '높은 인도주의의 전통', '해방 후에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문예정책'의 특성을 밝히는 데 그 지향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향점은 이 책의 차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제4장 해방 후 문학-평화적 민주건설 시기의 문학'에서 '해방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발전을 위한 당의 정책'에 대한 서술과 '제5장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문학'에서 '전시문학의 전투성을 강화하기 위한 당의 정책'에 대한 서술, '제6장 전후시기의 문학'에서 '사회 정치적 환경과 이 시기 당의 문예정책'을 서술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조선문학통사』에서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의 지향점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을 비롯한 일체의 진보적 문학"을 위해 첫째 "자연주의 기타 부르주아문학을 반대", 둘째 "현실생활을 계급적 대립관계에서 파악", 셋째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복무하려는 당성원칙

발현”, 넷째 “일제통치하의 자본주의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 다섯째 “사회주의적 이상을 구현하는 긍정적 주인공 창조” 등에 두고 있다.(174)<sup>2)</sup>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사실주의 문학의 승리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승리는 “조선 인민들은 한결같이 30년대의 혁명문학과 조선 프롤레타리아문학을 자기들의 문학으로 자기들의 정신 및 사상의 선도자로 지지하며 사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러저러한 모든 난관, 애로, 위기를 극복”하고 얻어질 때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이다.(174) 결국 난관과 애로, 위기를 제공하는 상대와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승리는 투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정론문학과 평론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평론에서 “我와 非我的 투쟁”<sup>3)</sup>, “발전이란 곧 대립하는 존재들의 투쟁”<sup>4)</sup>이라는 이분법적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제1장 1900~1919년의 문학’에서의 친일문화를 제창한 리용구 송병준 등과 친미문화를 주창한 리승만 서재필 등 매국도당(10), 반인민적인 작품들을 쓴 최남선 등(29), ‘제2장 1919~1930년의 문학’에서의 지배계급의 반동사상의 대변자로 전락하는 자연주의문학, 일제에 대하여 투항 타협 굴복하여 패배주의적 퇴폐사상을 전파하는 반동문학가들, 유물론과 사실주의를 거부하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는 반동적 기만적인 설교(33), 무저항주의 박애주의 성선설(性善說)등과 결합하는 리광수, 반인민적 사상을 계승하는 방정환 등(85), ‘제3장 1930~1945년의 문학’에서의 <9인회> <해외문학파> 반동문학단체, 그들의 <반쏘> <반공> 선전(104), 온갖 부르조아 반동문학, 예술 지상주의- 퇴폐주의 형식주의 자연주의 문학, 반동사상을 선전하기에 광분하는 <시문학>과 <문예월간> <해외문학연구> 등의 발간(169), 사회주의

- 
- 2) ( ) 안의 숫자는 사회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 현대편(1959 : 도서출판 인동, 1988)의 쪽수임.  
 3) 단재는 『조선상고사』 총론 첫 구절에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我와 非我的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心的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4) 차하순, 『사관이란 무엇인가』(청람, 1993), 84쪽.

사실주의 창작방법론에 대하여 악의에 찬 중상을 퍼붓고 그것을 외곡된 형태로 류포하는 부르조아문학가들, 사실주의 간판 밑에 본질에 있어서는 자연주의를 레찬하는 립화, 객관주의적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그리라'고 절규하는 최재서 백철 김남천, 순수 투명한 경지에서서만 예술의正道(正道)는 열린다고 지껄이는 리태준(171) 등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공산당이 창건되었는바, 이는 운동의 합법칙적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며 (...)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에 추동력을 주었다." (32)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 '근본적 개혁의 혁명적 사상을 강조' 하고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을 지향' 하기 위해 '생활의 진실을 일반적 내용'으로 하며 '조선의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의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고 '당대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을 폭로' 하고 '일본제국주의, 자본주의 사회제도, 자연주의문학을 반대' 하고 있다(38).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의 근간을 이루는 <근대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이 책을 두 권으로 나누어 내 놓으면서 하권의 경우 1900년대부터 시대구분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 구획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연속성에 대한 인식은 <정론문학>을 언급하면서 "실학파의 거장들인 박연암, 정다산 등의 정론적인 문학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17)라든가, "일제의 탄압으로 <카프>가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프로레타리아문학가들은 <카프>의 전통을 계속 발전시키었는바, 그 영향 밑에 새로운 문학력량은 더욱 늘어갔으며 기성 문학 역량들도 20년대부터의 투쟁적 문학경험을 더욱 풍부히 하면서 자기들의 예술적 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106~107), 또는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승리를 언급하면서 "항일빨치산투쟁 과정에서 개화발전한 30년대의 혁명문학과 그 영향 밑에 장성발전한 이 시기의 프롤레타리아문학은 전(前)시기에 있어서의 조선 프롤레타리아문학의 특질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167)라는

등의 서술에서 단절적 불연속성을 극복하여 연속성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대구분에서 보면 '1900~1919년의 문학', '1919~1930년의 문학', '1930~1945년의 문학'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한 시기가 끝나는 연도와 다음 시기가 시작하는 연도를 중첩시켜 단절적 인식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제4장 해방 후의 문학'부터는 오히려 단절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그 서술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소위 임화의 <이식문학론>을 분석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근대문학사를 영향사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영향을 구소련의 영향하에 두고 소련문학의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을 지향하고 있다.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은 위대한 10월혁명의 영향하에 일어난 3·1운동 이후 무산계급운동이 치렬히 전개되고, 맑스주의사상이 광범히 침투되는 조건하에서 쏘베트문학의 직접적 영향하에 출발 당초부터 사회주의사실주의의 방향으로 자기를 발전"(91)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의는 "선진적 소련문학의 섭취는 (...) 소련의 제반 승리적인 형상물들에서 배우는 것은 물론, 이와 아울러 사회주의사실주의 론의들을 섭취하여 연구하는 데에로까지 발전하여 (...) 우리나라 문학의 새로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107)는 것이다.

또 서술체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가'나 '시문학'보다 '산문'을 앞세우고 있다.

191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서 <자유시>에로의 지향을 보여주는 문학 현상들이 나타났다. (...) <자유시>는 일반적으로 자유, 평등, 민권, 정의, 자주독립, 문명의 사상 등을 노래하였는바, 그들은 재래의 정형적 시가는 그러한 새로운 사상을 충분히 노래하기에는 이미 불편한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였다.(29)

이와 같이 그 중요시하는 갈래의 순서를 보면, 산문, 자유시, 정형시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서술 체계는 개괄, 산문, 시문학, 평론 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4장부터는 당 정책, 소설, 시문학, 희곡 순으

로 서술하고 있다.

## 2. 시대구분과 그 구성

시대구분에 대해서도 '머리말'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시대구분에 있어서 일부 사료의 취급 및 문학현상들의 분석 평가에 있어서 종래의 문학사적 저서들과 구별되는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술은 기본적으로 매개 시기에 따른 역사적 개괄에 기본을 두면서 소여 시기의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 작가들의 문학사적 공적을 정확하게 밝히려고도 노력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종래의 문학사적 저서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으며, '대표적 작가들의 문학사적 공적을 정확하게 밝히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시대구분의 방법이나 그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 시대구분을 보면 『조선문학통사』(하)권은 총 6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장 1900~1919년의 문학

제2장 1919~1930년의 문학

제3장 1930~1945년의 문학

제4장 해방 후 문학-평화적 민주건설 시기의 문학

제5장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문학

제6장 전후시기의 문학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1장부터 3장까지는 모두 45년에 해당하는데 연도별로만 구분하고 있고, 제4장부터 6장까지는 10여 년에 해당하는데 시대를 명명하면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서술 내용에서는 '제1장 1900~1919년의 문학'은 '애국적 계몽운동 시기'로, '제2장 1919~1930년의 문학'은 '민족 해방 투쟁 시기'로, '제3장 1930~1945년의 문학'은 '항일무장 투쟁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

시대구분에 대하여 그 구획의 의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2장에서 1930년을 그 기점으로 구획하고 있는 점을 보면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로동자들의 대중적 파업”, “로조 및 농조사건과 농민투쟁”, “전국적인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조선 인민의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힘입어 “공산당이 창건”되었으나, “당은 맑스·레닌주의로 철저히 무장하지 못하고 (...) 그 당시 공산당의 핵심이 되었던 소부르쵸아 인텔리들의 동요”로 “1928년에 드디어 조직된 역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하였다.”(32~33)라고 서술하고 있어 공산당과 사회주의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시대구분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의 국제정세는 새로운 변동을 가져왔다. 소련에 서는 이 시기 사회주의건설 행정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다. 즉,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하고 특히 농업 집단화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날로 향상되어 갔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103)

즉 시대구분의 근간이 문학 내적 차원의 자율적 인식이 아니라 사회사와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의존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성은 장을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제1장에서 ‘1. 산문, 2. 시가’로 시작하여, 제2장에서는 ‘Ⅰ 프롤레타리아문학’과 ‘Ⅱ 프롤레타리아문학 이외의 이 시기 진보적 문학’으로 구성하고, 다시 ‘Ⅰ 프롤레타리아문학’에서 ‘1. 산문, 2. 시문학, 3. 평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Ⅰ 김일성원수 항일투쟁과정에서의 혁명문학’과 ‘Ⅱ 온갖 부르쵸아 반동문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프롤레타리아문학평론의 역할 및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승리’로 나누고, 다시 ‘Ⅰ 김일성원수 항일투쟁과정에서의 혁명문학’에서 ‘1. 산문, 2. 시문학’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제4장부터는 3장까지의 구성 방법과 달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 발전', '전시문학의 전투성 강화', '사회 정치적 환경'에 관한 당의 정책을 먼저 제시하고 소설, 시문학, 희곡 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문학 장르별로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제1장 '1. 산문'에서는 전기문학, 정론문학, 번역정치소설, 우화소설, 신소설을, '2시가'에서는 풍자시가와 의병 한시'를, 제2장 '산문'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조명희, 한설야, 송영, 최서해의 소설을, '2. 시문학'에서는 이상화, 박세영, 박팔양의 작품, 그리고 '아동문학'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3. 평론'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진보적 문학의 활동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혁명가요와 연극 등 혁명문학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긍정적 주인공'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 3. 시대별 서술 내용

#### 1) 제1장 1900~1919년의 문학

제1장에서는 애국적 계몽문화운동을 바탕으로 '교육운동', '출판활동', '국문운동'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애국적 계몽문화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밖으로는 침략을 반대하고 안으로는 봉건을 반대하여 자주독립을 성취" (10)하려는 것이라면서 이 시기의 문학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시기의 문학은 선행한 조선문학의 사실주의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면서 자주독립과 자유, 평등, 민권의 사상을 구현하였으며, 일본 침략자들에 대한 반항적 투쟁의식을 적극 추동하며 봉건제도의 폐단을 폭로규탄하는 애국적인 뻘포스를 보여주었다. 이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애국적 사회사상으로 더욱 고무되었으며 인민들의 사회·정치적 처지와 더욱 밀접히 결부되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론적 성격이 투철히 강한 문학으로 특징지어졌다.(12)

즉, 이 시기의 문학의 특징은 “애국적 사회사상으로 더욱 고무”되고 “인민들의 사회·정치적 처지와 더욱 밀접히 결부”된 “정론적 성격이 투철히 강한 문학”으로 특징짓고, “일본 침략자들에 대한 반항적 투쟁의식을 적극 추동”하고 “봉건제도의 폐단을 폭로규탄하는 애국적인 뻘포스”를 통해 “사실주의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면서 자주독립과 자유, 평등, 민권의 사상을 구현”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산문’ 부분에서는 ‘전기문학’, ‘정론문학’, ‘번역정치소설’, ‘우화소설’, ‘신소설’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정론문학에 대하여 전봉준 등 3인의 명의로 발표한 「호남창의소」와 황성신문 1908. 2. 26일자 사설 「영웅을 갈망함」 등을 소개하면서 “당시의 역사적 생활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시대적 문제들을 제기”하여 “인민적 관심을 고무”하고 “제기되어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으로 인민들을 호소”하는 특질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15). 그러면서 이 시기의 이 정론들의 그 사상적 본질에 대하여 “심각히 진보적인 것이며 투철한 애국적이며 전투적인 뻘포스”(17)를 갖는 것으로 특징짓고 있다.

그 외에 국여생의 단편소설 「숲은 모순」에 대하여 작품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시가’ 부분에서는 “해내 해외에서의 민국가요, 사립학교에서의 애국적 교가”(21) 등에 대하여 영웅적 전기 등과 함께 이미 서술하고 “창가 재래의 가요형식의 풍자시가”와 “의병투쟁 과정에서 나온 한시”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한시로는 의병장 전해산의 한시와 최익현의 한시를 소개하고 있다.

## 2) 제2장 1919~1930년의 문학

제2장에서는 “위대한 로씨야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 밑에 일어났던 3·1운동”, “맑스주의 사상이 인민대중 속에 널리 보급 침투되기 시작”, “로동운동이 치렬히 전개되기 시작” 한 시기로 규정하고 “조선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이 “새로운 역사적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31) 즉 ‘민족 해방투쟁 시기’로 규정하고 “20년대 초기부터 조선 로동계급은 조선 민족해방투쟁의 주도적 역량으로 장성하였으며, 그것은 점차 조직성과 목적지향성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라면서 김일성의 말을 인용하고 있기도 하다.(31)

특히 “20년대의 조선의 진보적 문학사조”에 대하여 첫째 ‘사회주의문학이 점차 형성 장성되어 갔다는 사정’, 둘째 “사회주의사실주의가 이 시기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유일한 창작방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 셋째 “시종여일 비판적 사실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일련의 작가들(라도향, 김소월)의 창작활동이 있었다는 사정”과 관련시켜 서술하고 있다.(37) 그러면서 <카프>의 결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카프>가 자연주의 문학에 반대한 사실, 그리고 조명희 리기영 한설야 최서해 김복진 윤기정 등이 “중심이 되어 문학의 맑스·레닌주의적 당성의 제고를 위한 조직적 대책이 실질적으로 취”(35)해졌다고 개괄하고 있다.

‘산문’에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문학은 “일본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제도 반대”, “자연주의문학 반대”, “조선의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의 전통 계승발전”을 토대로 “당대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을 폭로”, “근본적 개혁의 혁명적 사상을 강조”,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을 지향”했다고 서술하고 있다.(38) 이에 해당하는 문인인 조명희, 리기영, 한설야, 송영, 최서해 등을 바탕으로 작품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시문학’에서는 “20년대의 새로운 현실생활의 역사적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과 행복”,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위한 복무’,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대한 강한 규탄”, “인민이 생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시대적 정신적 추구”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리상화, 김창술, 박세영, 박팔양 등의 창작활동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찾고 있다.(71)

또 이 부분에서 아동문학을 다루고 있는데, “아동문학이 나타나게 된 사회·역사적 기반은 우리나라 프롤레타리아문학의 그것과 같으며, 그 과

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조선인민의 반제반봉건의 혁명사업에 복무"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아동문학은 "아동들을 혁명의식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미래의 믿음직한 혁명투사로 육성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85)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서해, 박세영 등의 동요와 동요극을 소개하고 있다.

'평론'에서는 "투쟁에 있어서의 창조적 형상물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고 하면서 리성태의 「현대문학의 방향」, 리익상의 「문학과 계급의식」, 「예술적 양심이 결여된 우리 문단」, 리종기의 「사회주의예술을 말하신 림로윌씨에게 묻고저」, 김수산의 「리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 한설야의 「프로레타리아예술선언」 등을 소개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문학 이외의 이 시기 진보적 문학'에서는 "무산계급운동이 치렬히 전개", "맑스주의사상이 광범히 침투", "쓰베트문학의 직접적 영향" 아래 "사회주의사실주의의 방향으로 자기 발전"을 이루었다고 서술하고 있다.(91) 특히 김소월의 시문학에 대한 긴 설명과 「밭고랑 우에서」 「초혼」 「상쾌한 아침」 등을 직접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 3) 제3장 1930~1945년의 문학

제3장에서는 그 시기를 "공산주의자들은 당시의 제반 주객관적 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 위에서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투쟁을 적극적 무장투쟁의 새로운 단계어로 발전"시켰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적 성과와 그 력량의 급속한 장성은 비상한 고무력을 갖고 국내 각처에서 노동계급의 투쟁과 농민 폭동의 광범한 혁명운동을 치렬히" 불러일으킨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104~105) 1936년에 조국광복회가 조직되고 그 조직망이 국내외에서 날로 장성하여 조선 인민혁명군의 반일계투쟁은 더욱 확대 공고히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105)

그리고 이 시기의 문학에 대해서는 "3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문학이 쟁취한 획기적 발전은 (...) 일제의 탄압으로 <카프>가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프롤레타리아문학가들은 <카프>의 전통을 계속 발전시키었는바, 그 영향 밑에 새로운 문학력량은 더욱 늘어갔으며 기성 문학력량들도 20년대부터의 투쟁적 문학경험을 더욱 풍부히 하면서 자기들의 예술적 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투쟁하였다.”라고 하면서 “전시기에 있어서의 문학의 제반 미숙성을 극복하면서 보다 발전된 수준에서의 자기 개화”를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106~107)

그리고 Ⅰ 김일성원수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의 항일문학’에서는 혁명가요와 연극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것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가렬한 혁명투쟁 과정에서 개화발전”한 것으로 혁명적 애국적이었다고 특징짓고 있다.(108)

이 시기에는 혁명가곡이 여러 편 소개되었으며, 산문에서 리기영, 한설야, 송영, 리복명, 엄홍섭, 홍명희 등을, 시문학에서 김창술, 류완희, 박세영, 안룡만, 박팔량, 권환 등과 아동문학에서 송영, 남궁만, 김복원, 홍구, 리원우, 김우진 등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 문학의 특성으로 “긍정적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는데, “공산주의자의 가장 우수한 전형을 창조하였다는 특질 속에 구현”되었다면서 “이 긍정적 주인공, 서정적 주인공들은 위대한 혁명적 생활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항일무장투쟁의 한가운데 서”있다고 제시했다.(124)

Ⅱ 온갖 부르조아 반동문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프롤레타리아문학평론의 역할 및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승리’에서는 “30년대의 혁명문학이 항일빨치산투쟁 과정에서 개화 발전했으며 이 시기의 프롤레타리아문학은 전(前)시기에 있어서의 조선 프롤레타리아문학의 특질을 더욱 발전”(167)시켰다면서 <카프>의 문학이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투적 기능을 제고하여 현대 조선문학사상에 귀중한 전통적 재산들을 쌓아올렸다”(169)라고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문학평론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이 시기의 프롤레타리아문학평론은 일제에게 매수된 일체의 부르조아문학

을 반대하면서 사회주의사실주의의 가치를 더욱 선명히 고수하는 사업에 비상한 정력을 경주하였다. 그것은 이 시기에 사회주의사실주의에 관한 연구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어졌다는 사실로써도 실증된다. 창작방법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탐구에 있어서 쏘련 제1차 작가대회의 경험은 조선의 진보적 작가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다. 사회주의사실주의 창작 방법에 대한 진지한 이론적 연구, 그것은 우리나라 문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비상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170~171)

일체의 부르조아 문학 반대,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 고수,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 창작 방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 등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역사소설의 유행에 대하여 그것은 복고주의적 문학사상이며 “그것은 앞날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고 삶의 의의와 가치를 오직 지난 날에 대한 향수에서 찾으려 하며 또는 과거의 명령의 의상을 빌어 전진하는 사회의 행로를 막으려 하는 반동적 생활층에 자기의 계급적 기반을 갖는다.”(172)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 4. 『조선문학통사』 서술의 성과와 문제점

『조선문학통사』의 서술은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머리말’ 부분의 다음 내용을 보자.

이 책에는 아직 여러 가지 이론적 및 사료적 문제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가령 판소리 문제, 창작방법으로서의 사실주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문제 등은 우리 문예학자 집단의 더욱 꾸준한 집체적 노력에 의하여 해결될 것인 만큼 이 책에서 깊이 저촉하지 않았다.

이 책의 집필에는 해당 부문이 연구자들이 망라되어 그 집체성이 발휘된 우점이 있는 반면에, 그 문체상의 통일을 원만히 기하지 못한 약점도 없지 않다.(머리말)

이를 정리하면, 판소리, 창작방법으로서의 사실주의에 대한 미해결의 문제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의 해결도 이 책의 서술 방법인 집체성

의 발휘로 풀어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선 그 성과부터 정리해 보면, 첫째 집체적 서술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그 동안 여러 문학사서들은 개인적 차원의 저술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문학통사가 집체적 서술의 시작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민족과 인민을 문학사의 중심 개념으로 인식하여 혁명가와 비문인들의 작품이나 구전작품들을 문학사 속에 반영하고 있는데, 한글 작품 이외에 한시 작품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 근대문학사서들은 서지적 차원의 접근으로 활자화된 것들을 중시하고 구전되고 있거나 비문인들의 작품은 설 곳이 없었다. 셋째, 문학 이론의 정립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이론이 아닌 프롤레타리아문학이나 진보적 문학에 국한하고 있지만 이전의 문학사에 비해 그 성과가 두드러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아동문학을 다루고 있다. 이전의 문학사서에서는 아동문학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지만, 이 문학통사에서는 아동문학을 동요, 동요극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다섯째 식민사관의 잔재인 메마른 실증주의 사관을 극복하고 있다. 형이상학적 사변적 개념과 그 범주에서 인식하지 않고 그 반대편인 경험적 과학적 개념에 의해 인식함으로써 그 동안의 메마른 역사 인식을 탈피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김시업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문학 발전의 추동력을 인민에 두고, 우리문학의 내재적 계기에 의해 자주적·주체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합법칙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을 높이 사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학 속에 들어가 발전의 본질적 계기를 포착하고 이를 현실에 결합시키는 일을 문학사의 사명으로 본 점은 옳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도 노정하고 있다. 첫째 집체적 서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그 서술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집체적 서술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집단 사고의 과정을 거침으

5) 민족문학연구소 편 의 앞의 책, 7쪽.

로 짧은 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고 큰 즐거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또 소수 의견을 무시할 우려와 권력자의 의견에 절대화되어 이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략하거나 통제적 서술에 머물러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문학적 사실을 엮어 놓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둘째 주관적 인식이나 일원론적 인식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문학사를 편파적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의 정책을 문학사 서술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혁명원리를 바탕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인식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다양한 가치 체계와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때문에 비판적 수용이 아닌 배제의 논리에 함몰되어 문학사적 자료의 빈곤을 자초하고 획일적, 도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학사 인식은 하나의 사관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연성에 따라 달리 보이기 때문에 복수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공산주의를 교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술됨으로 말미암은 교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교양 목적의 서술은 학술적 전문적 접근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 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단선화를 초래하게 된다. 넷째 문학사적 사실을 밝히는 데서 문학사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혁명원리와 당 정책의 정당성을 실증하는 데서 찾음으로써 가치와 사실을 혼동하고 있다. 문학사의 모든 과정을 당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인민들을 교양하고 선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다섯째 문학사를 수직적 발전원리에만 치중하여 해석하고 있다. 문학사의 발전은 수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횡적 입체적 관계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문학사 서술을 “새로 수립된 혁명정권이 부르조아 자유주의 잔재세력과 대결하여 혁명의 타당성 및 공산주의 승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데는 불가결한 무기”<sup>6)</sup>가 되고 있는 소련의 역사학과도 상통하고 있다.

6) 이인호, 「소련의 정치와 역사학과의 관계」(이광주·이인호 편), 『현대의 역사이론』, 한길사, 1993), 279쪽.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유문선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첫째, 창작방법론이 상당히 수준높은 이론적 성과들을 거두었으며, 그같은 성과에 근거하여 혹은 그와 병행하여 종래 카프 활동에 대한 전면적 평가작업을 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창작방법론이 갖는 비평사적 의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 창작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이전의 프로문학의 여러 창작방법들과 맺는 관계에 대한 이론사적 검토를 빠뜨리고 있다. (...) 셋째, 당대의 대표적 논객들, 즉 안막·임화·김남천·안함광·김두용(金斗鎔)·한효(韓曉) 등이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왜곡되고 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한설야와 이기영이 메우고 있는데, 특히 한설야가 지도적 위치에 올라서 있다. (...) 넷째, 창작방법 논의가 야기한 부정적 측면, 곧 정치적인 입장의 동요와 우익적 이탈 및 이데올로기적 부면에서의 당파성의 퇴거라는 당시의 실상을 외면한 채 단순히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기치를 고수하는 사업에 있어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다”(174면)고만 쓰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한계와 오류를 정확하게 밝히는 정당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문학통사』의 서술은 전후의 위기 의식 속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 Ⅲ. 결론

그 동안 『조선문학통사』 ‘하’ 권을 중심으로 근대기점에서부터 광복 이전까지에 대한 서술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문학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한국 근대문학사의 시대구분과 서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각 시대별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선문학통사』 서술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인식 방법에서는 집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당의 문예 정책을 교양하

7) 민족문학연구소 편,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창작과 비평, 1991), 381~382쪽.

기 위한 것과 그 지향점을 사회주의사실주의 문학의 승리에 두고 이분법적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 <근대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연속성과 영향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시대구분과 그 구성에서는 그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공산당과 사회주의의 발전 과정과 관련되고 있는 점, 사회사와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바탕으로 한 의존적 인식의 구성, 광복 후 부분인 4~6장의 경우는 당의 정책부터 서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또 시대별 서술 내용에서는 제1장에서의 애국적 계몽운동에 대한 내용, 시기'로, 제2장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내용, 제3장에서의 항일무장 투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서술을 살펴보았으며, 그 성과와 문제점에서는 집체적 서술의 가능성, 민족과 대중을 중심으로 한 인식, 식민사관의 극복 등의 성과와 집체적 서술의 한계, 자의적 편파적 해석, 도식적 획일적 인식, 교조적 한계 등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글은 광복 후부터 1950년대에 한국 근대문학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사회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 현대편(1959), 도서출판 인동, 1988.
- 민족문학연구소 편,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 비평, 1991.
- 양영길,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사, 2001.
- 이명재, 「북한문학사 서술의 문제점」, 『어문연구』 8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4년 가을.
- 이인호, 「소련의 정치와 역사학과의 관계」, 이광주·이민호 편, 『현대의 역사이론』, 한길사, 1993.
- 차하순, 『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 1993.